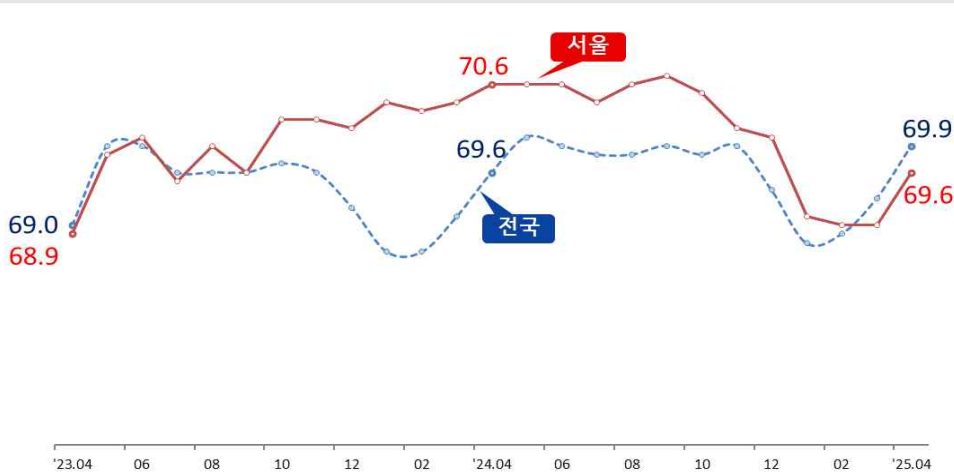


- ▶ 취업자(-7만 2천명) 감소했으나 감소폭 축소
- ▶ 15-64세 고용률(69.6%, -1.0%p), 고용률(61.3%, -0.7%p) 모두 하락
- ▶ 실업률은 3.9%(+0.3%p)로 17개 시·도 중 가장 높은 수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 별		남성(-3만 6천명), 여성(-3만 6천명)
연 령	60세이상 (+6만명)	청년(-7만 4천명), 40대(-3만 1천명), 30대(-1만 8천명), 50대(-9천명)
산 업	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6천명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+5만명)	제조업(-14만 5천명), 건설업(-3만 5천명),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-3천명)
종사상 지 위	자영업자(+5만명), 일용근로자(+5천명) 고용원 無 자영업자: +4만명 고용원 有 자영업자: +1만명	상용근로자(-7만 1천), 임시근로자(-4만 2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-1만 3천명)
직 업	서비스·판매 종사자(+2만 7천명), 단순종사자(+2만 4천명)	관리자·전문가(-5만 4천명), 사무종사자(-3만명), 기능원(-2만 5천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-1만 2천명)
취업시간		일시휴직자(-3만 7천명), 36시간 미만(-1만 9천명), 36시간 이상(-1만 6천명)

15-64세 고용률(%) 추이



전 국

서 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17만 6천명 · 10만 9천명 감소(0.2%↓)	933만 2천명 (전국의 18.2%) · 4만 6천명 감소(0.5%↓)
15세이상 인구	4,572만명 · 18만 1천명 증가(0.4%↑)	845만명 (전국의 18.5%) · 2만 2천명 감소(0.3%↓)
경제활동 인구	2,974만 1천명 · 16만 3천명 증가(0.6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5.1%(0.1%p↑) * 청년층 48.8%(0.8%p↓)	539만 1천명 (전국의 18.1%) · 5만 7천명 감소(1.0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3.8%(0.5%p↓)
취업자	2,888만 7천명 · 19만 4천명 증가(0.7%↑) - 고용률 63.2%(0.2%p↑) - 15~64세 고용률 69.9%(0.3%p↑) * 청년층 45.3%(0.9%p↓)	518만 1천명 (전국의 17.9%) · 7만 2천명 감소(1.4%↓) - 고용률 61.3%(0.7%p↓) - 15~64세 고용률 69.6%(1.0%p↓)
실업자	85만 4천명 · 3만 1천명 감소(3.4%↓) - 실업률 2.9%(0.1%p↓) * 청년층 7.3%(0.5%p↑)	21만 1천명 (전국의 24.7%) · 1만 5천명 증가(7.6%↑) - 실업률 3.9%(0.3%p↑)
비경제 활동인구	1,597만 9천명 · 1만 8천명 증가(0.1%↑)	305만 9천명 (전국의 19.1%) · 3만 5천명 증가(1.1%↑)

청년층 자료: *전국(월별 발표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경기(66.3) > 인천(65.5) > 대전(63.9) > 서울(63.8) > 광주(62.6) > 울산(62) > 대구(60.6) > 부산(60)
- 고용률15~64세(%)
경기(71.1) > 인천(69.9) > 서울(69.6) > 대전(68.4) > 부산(68.2) > 울산(67.1) > 대구(66) > 광주(65.4)
- 실업률(%)
서울(3.9) > 대구(3.7) > 광주(3.5) > 인천(3.2) > 경기(2.8) > 대전(2.7) > 울산(2.4) > 부산(2.2)

2025년
4월
서울고용동향

취업자 7만 2천명 감소, 감소세 지속

- 제조업-14만 5천명, -28.3% 역대 최고 감소폭 -

* 조사대상주간: '25.4.13.~4.19.

총괄

고용률은 4개월 연속 큰 폭 하락한 61.3%(-0.7%p)로, 전국 고용률(63.2%)을 1.9%p 하회

- 15-64세 고용률은 69.6%(-1.0%p)로 하락세를 지속하고, 4개월 연속 70.0%를 하회

실업률은 3.9%(+0.3%p)로 전국 실업률(2.9%)을 1.0%p 상회하며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음

취업자수

취업자(518만 1천명, -7만 2천명)의 감소폭은 축소하나, 제조업 및 건설업, 청년층의 부진 여전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105 (5)29 (6)24 (7)58 (8)28 (9)64 (10)24 (11)-13 (12)-12 ('25.1)-94 (2)-98 (3)-108 (4)-72

* (전국) 취업자수(2,888만 7천명, +19만 4천명)는 전문과학·교육서비스·정보통신 등의 증가와 보건복지, 공공행정업의 증가세 유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261 (5)80 (6)96 (7)172 (8)123 (9)144 (10)83 (11)123 (12)-52 ('25.1)135 (2)136 (3)193 (4)194

산업별 • 제조업은 역대 최고 감소폭, 건설업과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은 감소세 지속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6만 6천명, +3.0%)은 돌봄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증가 지속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-24 (5)-25 (6)-40 (7)11 (8)14 (9)42 (10)78 (11)73 (12)111 ('25.1)93 (2)71 (3)75 (4)66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+5만명, +5.0%)은 배달 수요, 디지털·영상 업종 수요 증가 등으로 26개월 연속 증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45 (5)44 (6)75 (7)76 (8)97 (9)97 (10)71 (11)52 (12)37 ('25.1)38 (2)35 (3)34 (4)50

▶ 제조업(-14만 5천명, -28.3%)은 10개월 연속 감소하고, 감소폭도 확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62 (5)38 (6)24 (7)-0.4 (8)-38 (9)-54 (10)-70 (11)-77 (12)-101 ('25.1)-104 (2)-99 (3)-131 (4)-145

* (전국)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97 (5)38 (6)9 (7)-11 (8)-35 (9)-49 (10)-33 (11)-95 (12)-97 ('25.1)-56 (2)-74 (3)-112 (4)-124

▶ 건설업(-3만 5천명, -10.6%)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감소세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-6 (5)-26 (6)-29 (7)-19 (8)-25 (9)-8 (10)4 (11)-5 (12)-14 ('25.1)-34 (2)-36 (3)-49 (4)-35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-3천명, -0.2%)은 12개월 연속 감소하나 감소폭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4.4)29 (5)-1 (6)-6 (7)-11 (8)-20 (9)-12 (10)-58 (11)-56 (12)-44 ('25.1)-84 (2)-68 (3)-35 (4)-3

* (전국) 보건·복지(+21만 8천명), 전문·과학기술(+11만 3천명), 정보통신(+7만 2천명), 교육(+6만 8천명), 금융·보험(+6만 5천명) 등에서 증가
건설업(-15만명), 농림어업(-13만 4천명) 등의 지속적인 감소와 제조업(-12만 4천명)의 취업자 감소폭 확대

연령별 • 청년층(-7만 4천명, -8.4%), 50대(-9천명, -0.8%)는 감소폭 축소
• 30대(-1만 8천명, -1.4%), 40대(-3만 1천명, -2.9%)는 감소 지속
• 60세 이상(+6만명, +6.2%) 증가 지속

* (전국) 청년층(-17만 4천명)과 40대(-5만 1천명), 50대(-1만 4천명)는 감소 지속

60세 이상(+34만명)과 30대(+9만 3천명)는 증가세

종사상 • 상용직(-7만 1천명, -2.1%), 임시직(-4만 2천명, -4.6%)은 감소폭 확대, 일용직은 증가 전환

지위 • 고용원 無 자영업자(+4만명)는 8개월 연속 증가, 고용원 有 자영업자(+1만명)는 증가 전환

* (전국) 상용직(+27만 9천명)과 임시직(+5만 2천명)은 증가 지속하는 반면, 일용직(-5만 4천명)은 감소 지속

고용원 無 자영업자(+1만 1천명)는 증가 지속, 고용원 有 자영업자(-1만 6천명)는 7개월 연속 감소